

Youngeun News

동행

5월

2025년 465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은교회
www.youngeun.or.kr

color

2025 영은, 색을 입히다



“어머니”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그 분’을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분.
가만히 불러보기만 해도 힘이 되는 분.

어머니.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15) 

〈글 · 사진 : 서현이 기자〉

영은교회 창립 주후 1960. 04. 24



월간 동행 영은 홍보부

1984년 4월 27일 창간

발행일 제465호 / 2025. 5. 4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61 영은교회

전화. 02-2676-7171~2

월간 동행 E-mail. yemagazine@naver.com

발행인 이승구 목사

지도목사 최광주 목사

편집인 김석진 장로

편집차장 김창원 안수집사

서선이 권사

편집 서선이 김경원B 윤정림

기자 김명희C 서현이 이숙경

사진기자 허영준

디자인 디자인 샘

월간 동행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 소식지입니다.

2025년 「월간 동행」 사역자 모집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생생한 글과 사진으로
남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월간 동행과 함께 동역하실
사역자를 기다립니다.

CONTENTS

02 그림이 있는 풍경

“어머니” / 서현이 기자

04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우선순위, 믿음 / 이승구 담임목사

07 믿고 알고 알고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 최광주 목사

08 신앙의 유산

봉사가 삶의 기쁨이 된 조귀성 명예안수집사 / 조귀성 명예안수집사

10 웹진 동행

화요 직장인 예배 1년을 뒤돌아보며 / 장진아 권사

은퇴권사회 산상기도회 / 박명자 은퇴권사

부활절 칸타타, 〈그가〉 / 신하평 안수집사

13 영은 소식

“예수의 고난에 물들다” / 최정태 안수집사

온 세대가 하나되어 부활의 기쁨을 나눈 〈2025 올백데이〉 /

김명희 기자 / 자료제공 : 허 준 안수집사 / 사진 : 허영준 집사

20 Color 찬양

찬양으로 헌신하는 장년 찬양대

22 슬기로운 교회생활

봉헌의 의미와 드리는 자세 / 한진구 목사

23 빼떡하게

우리의 삶과 죽음은 각기 다를지라도 / 이숙경 기자

24 교회안내

2025년 올백데이

「월간 동행」에서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영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거나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월간 동행 이메일(yemagazine@naver.com)로 사진과 함께
보내주세요.

편집회의 검토한 후 월간 동행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 믿음

(마가복음 2:5, 5:34)



글 | 이승구 담임목사

예수님에게도 믿음은 우선순위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믿음이란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에서 예수님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광야에서 보여 주신 믿음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거기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모두 ‘어떤 메시아가 될 것인가’에 관한 유혹들이었습니다.

먼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은 “네가 스스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능력이 있는데 굳이 굶주릴 필요가 있느냐?”고 부추깁니다. 사십 일을 굶주려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였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사탄은 이어 “내게 절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자신에게 절하기만 하면 그렇게 해 주겠다고 달콤하게 제안합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거쳐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비해 훨씬 쉽고 빠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번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

하셨습니다. 고난이 뻔히 눈앞에 있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것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길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높은 데서 뛰어 내리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예수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이 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거듭된 유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보여 주신 믿음

예수님의 기도의 정점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를 위해 사셨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과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셨습니다. 그

리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에서 비롯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언제나 ‘믿음’을 우선순위로 선택하셨습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

본문에는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인파가 몰려 있어서 도저히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막 2:4)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단층집이었고, 사면은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석회암으로 쌓였으며,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옥외 계단이 있는 형태였습니다. 지붕은 수평으로는 돌무화과나무 가지로 만든 대들보를 깔고, 수직으로는 갈대나 종려나무 가지를 칸 후에 진흙을 발랐습니다. 지붕을 만든 재료가 흙과 짚, 나무 등이어서 현대의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보다 해체가 쉬웠

다 할지라도 그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병자의 침상을 내리기까지는 여간 수고로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감내했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께 보여 치유받게 하려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막 2:5)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방해물이 있어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보셨습니다. 인파가 몰려 예수님께 다가갈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을 보시고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들의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처럼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인내할 만한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내하고 싶어 하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가보나마나일 거라고 생각했다면 지붕에 올라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나를 것이라는 강력한 소망이 있었기에 여기서 인내할 만한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시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었습니다(막 5:22~24). 이때 야이로만큼 절박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막 5:25)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부정한 자라는 수모까지 당하던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던 그녀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막5:27) 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막5:28)’ 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몰래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여인의 혈루증이 나았습니다(막 5:29). 여인은 주님 앞에 나설 용기가 없어서 그저 뒤에서 은밀하게 살짝 옷을 만졌습니다. 대단하다고 하기 어려운 아주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바라보시며 말씀으로 치유하지 않더라도, 자신을 직접 만지지 않더라도, 그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올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를 낫게 해주었지만, 그 능력이 발휘되도록 만든 것은 그녀의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을 위해서는 촉매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비로소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를 깨닫곤 합니다. 이때 주님을 내 삶의 현장에 초대하는 촉매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행동,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믿음의 행동이지만, 대단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칭찬을 가져오는 촉매가 있어야 합니다.

■ 예수님의 우선순위, 믿음

예수님에게도 믿음은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 전적으로 아버지께 맡기는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을 위해 인내할 만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는 기도, 소망, 공동체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을 위해 주님의 개입을 가져오는 촉매 역할을 하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선 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글 | 최광주 목사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스리라 하시니라”(창 1:27~28)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자기들만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문화적,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땅을 창조한 선한 목적으로 돌보고 책임질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두 남녀의 결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의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면 자녀와 고부관계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집중하고 노력해야 할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는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습니다. 서로에게서 내 필요와 이익만 쟁취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함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33절의 말씀처럼 남편이 자기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면서 가정을 건강히 세울 수 있습니다. 조건과 이유가 있을 때만,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채워주어야 합니다.

‘미녀와 야수’란 동화가 있습니다. 마법에 걸려 야수가 된 왕자가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미녀와 사랑하게 되는데, 그 진정한 사랑의 힘이 다시 왕자로 돌아오게 한다는 재미와 감동이 있는 동화입니다. 이 동화에서 주인공인 미녀는 왕자가 멋있는 모습일 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야수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사랑하였습니다. 야수의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주었을 때 비로소 사랑의 힘이 작동되어 마법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내 기대에 맞추어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드리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때 상대방에게서 진정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희생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사랑하고 존경할 힘이 부족하기에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에로스나 필레오의 사랑이 아닌 아가페의 사랑을 매일 하나님께 구하며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영은교회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유산 : 조귀성 명예안수집사]



조귀성 명예안수집사

봉사가 삶의 기쁨이 된 조귀성 명예안수집사

“영은교회 구석구석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올해로 83살이 된 조귀성 명예안수집사님은 1972년부터 53년간 영은교회에서 신앙과 봉사의 삶을 지켜왔다. 조귀성 집사님이 교회를 세세히 잘 아는 데는 이유가 있다. 조 집사님은 1984년에 ‘서리집사’에 임명되어 줄곧 교회 시설관리부에서 봉사하였다. 집사가 되면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일하게 되지만, 조 집사님은 시설관리부에서만 27년 동안 몸담으면서 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 참여할 수 있었다. 시설관리부에서 오래도록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서리집사였기에 가능했다.

■ 봉사하는 직분 ‘집사’

‘집사’는 ‘보조자’라는 뜻인 헬라어 ‘디아코노스’를 번역한 말이다. ‘디아코노스’의 직분은 사도행전 6장에서 스테반을 비롯해 7명의 집사를 뽑은 데서 시작한다. 집사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분이다. 집사에는 안수집사와 서리집사가 있는데, 서리집사는 안수집사와 달리 교인이 투표로 뽑는 향존직이 아니며, 당회가 매년 임명하는 임시직이다. 올해 우리 교회에는 남녀 서리집사 1,299명이 임명됐다. 향존직은 대개 한 부서에 2년 정도 소속되어 봉사하게 되지만, 서리집사는 매년 임명되기에 한 부서에서 계속 봉사할 수 있다. 조 집사님이 시설관리부에서 27년 동안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서리집사라서 가능했다. 집사님은 시설관리부에 있으면서 교회 구석구석 시설을 돌보는 일을 할 수 있었고 향남동산, 설악영은교회(현, 영은설악센터), 백학동산과 관련된 일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 두동교회에서 시작된 ‘신앙의 가문’

조귀성 집사님은 1942년 전북 익산에서 4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집사님은 6살 때부터 부모님이 다니던 두동교회를 나갔다.



100년 전통의 전북 익산 두동교회(7자 교회)

두동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소속교회로, 전라북도문화재자료 제179호와 익산노회 사적지 1호, 한국기독교사적 제4호로 지정되어있는 한국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유서 깊은 교회다. 두동교회는 1923년 전북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에서 시작된 교회로, 1929

년에 ‘기역(ㄱ)’ 자형 예배당을 건축했다. 익산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건물이다. ‘ㄱ’자 모양의 예배당은 남녀 회중석을 구분하기 위함이고,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 의도된 형태다. 조귀성 집사님의 아버지가 두동교회 건축공사를 맡았다. 아버지는 교회 건축을 마치면서 그 교회 교인이 되었고, 어머니도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었다. 어린 조 집사님은 부모님을 따라 두동교회를 나갔다. 두동교회의 100년 신앙의 유산만큼, 조귀성 집사님 가족의 ‘신앙의 유산’도 빛났다. 현재 11촌 이내에 목회자가 7명이나 된다. 조카도 목사고 막내동생 남편도 목사다. 교회를 건축한 아버지의 손이 ‘신앙의 가문’을 일군 것이다.

■ 영은교회 집사가 되어 교회 봉사 시작

조귀성 집사님은 14살 때까지 두동교회를 다녔고, 학습도 받았다. 두동교회 교회학교에서는 성탄절 축하 연극도 했고, 새벽기도도 다녔다. 15살이 되던 해에 서울로 상경하면서 신당동 중앙교회에 등록했다.



판문점 견학(1987년): 조귀성 안수집사(둘째 줄 중앙)

이 교회에서 1968년 조원곤 담임목사님의 주례로 정혜자 집사와 결혼을 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72년에 서현석 장로님 가정의 인도로 영은교회에 오게 됐다. 처음 12년 동안은 생활이 어려워서 성도로만 있었다. 그러다 1983년에 세례를 받았다. 이용남 목사님의 권유로 1984년에 서리집사가 되어 교회를 위해 봉사하기 시작했다. 90년대 초반에는 미래환경위원회와 설악영은교회, 남선교회,

총무부, 관리부 등 교회 여러 분야에서 봉사했다. 시설 관리부에서는 계속해 일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최광우, 서현석 장로님과 본당 건축위원회에도 참여했다. 경기도 가평군에 설악영은교회가 준공(1994년 입당)되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10년 동안 봉사했고, 그때 정화조 공사 감독을 맡기도 했다. 향남동산 화재사건과 설악기도원 철조망 공사, 교회 엘리베이터 증축 때도 조 집사님이 함께 했다.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했다. 그래서인가, 조 집사님의 교회 사량이 남다르다.

조 집사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봉사의 삶을 살았다. 통장, 새마을지도자, 청소년 선도위원 등을 맡아 봉사했다. 구제사업으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동안 영등포구에서, 2005년부터 2024년까지 20년간 구로구에서 봉사했다. 그 공로로 서울시 시장 표창 3회, 새마을 서울시 표창 2회, 영등포구 구청장 1회, 구로구 구청장 1회, 새마을 영등포지회장 공로패 등 10회 수상을 했다. 또한, 4개 교회(의정부 광명교회, 가평 금대교회, 안산 새생명교회, 전남 보성 칠동교회)에 수년간 학비 및 생활비를 지원했다. 2023년에는 가나국 관정(우물파기) 사업에도 참여했다. 집사님은 어려운 형편 가운에서도 1년에 200~300만 원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다. 주변의 이웃에게 쌀과 내의를 사주는 일도 지금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조 집사님은 “내가 살면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가마니 덮고 잔 적도 있어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없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어요. 나는 굶어도 남을 도와주면 편해요.”라고 답한다. 신앙을 지키며 봉사자로서 한평생 헌신한 조귀성 집사님에게 교회는 ‘명예안수집사’의 직함을 주었다. 명예

〈인터뷰 · 글 : 김명희 기자〉



글 | 장진아 권사

화요 직장인 예배 1년을 뒤돌아보며



1주년 기념 화요직장인 예배



예배 후 점심식사(7층 식당)

오랜 기다림 끝에 시작된 화요 직장인예배가 4월 1일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초창기에는 참여 인원을 예측할 수 없어 오늘은 과연 몇 명이 올까? 매주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자들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현재는 봉사자 포함 100명 내외의 예배자들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예배 봉사자는 안내팀, 찬양팀, 식당 배식팀으로 나뉘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적은 인원으로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셰프와 여사님들도 있습니다.

첫 예배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오는 직장인 중에는 믿음이 없는 분들, 오래전 예배의 자리를 떠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인 예배를 통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이스하이트크 건물에 있는 한 회사는 점심시간이 12시라 예배 참석이 어려웠는데 회사대표의 배려로 화요일만 직장인

예배 시간에 맞춰 점심시간을 11시 30분으로 옮겼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주년 예배를 앞둔 어느 날 예배 채널로 메시지가 한 통 왔습니다. “기다려지는 화요일 예배, 부족한 믿음에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신 영은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격려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1주년을 맞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화요 직장인 예배를 통해 예배로 나오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 어렵게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온 이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 직장인 예배가 앞으로도 직장 선교와 전도의 장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글 | 박명자 은퇴권사

은퇴권사회 산상기도회



4월 22일 화요일 은퇴권사회 산상기도회가 영은설악센터에서 있었다. 영은설악센터로 떠나는 날, 아침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아침 일찍 권사님들 51명이 교회에 모였다. 비가 오는 곳은 날씨였지만, 영은설악센터로 출발할 때 권사님들의 모습은 모처럼 설레는 환한 얼굴이었다.

오전 11시쯤에 영은설악센터에 도착했다. “넘~좋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시간이 되어 조용한 가운데 은퇴권사회 회장인 윤신노 권사님의 인도로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은퇴권사회 담당 최광주 목사님이 에베소서 1장 3~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교회입니다”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목사님은 은퇴권사회가 복된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가 될 것을 권면했다. 또한, 주일 예

배를 잘 지키는 은퇴 권사님들의 기도로 세속화되고 어지럽고 혼미한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밝힐 수 있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했다. 권사님들은 교회와 병중에 있는 많은 은퇴 권사님들을 위해 통성으로 합심해 기도했다. 이후 최광주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식당으로 이동하여 맛있는 점심식사도 하고, 옹기종기 모여 좋은 차를 마시며 대화의 꽃을 피웠다. 권사님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후 3시에 가평에서 출발하여 5시에 양평동에 도착해 저녁식사를 한 후 기쁨을 한 아름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우중이지만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심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린다.



글 | 신하평 안수집사

부활절 칸타타, 〈그가〉



4월 20일 부활주일 오전 10시에 전교인이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린 후, 영은교회의 5개 찬양대(임마누엘, 시온, 호산나, 갈릴리, 샤론)로 구성된 연합찬양대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담아 칸타타 〈그가〉(우효원 작곡)를 찬양하였다.

100여 명으로 구성된 연합찬양대와 20여 명의 오케스트라가 하나가 되어 〈그가〉를 연주하였다. 지휘는 시온찬양대의 채수범 집사가, 피아노는 김수영 선생, 오르간은 이가영 선생이 맡아주었다. 연합찬양대의 부활절 칸타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부활에 이르는 은혜의 여정을 11곡의 음악으로 깊이 있게 전하며 많은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특히 우효원의 칸타타 〈그가〉는 부활절을 주제로 한 합창곡으로 솔리스트들(소프라노 박준원, 메조소프라노 이솔, 테너 이은호, 바리톤 김용원, 베이스 최승원)

과 4부 합창 솔리스트들의 절절한 고백을 통해,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지난 2월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연합찬양대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찬양 연습을 하였다.

칸타타를 위해 헌신한 연합찬양대와 기도와 후원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이 칸타타가 많은 성도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새기고,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은혜의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한다. 앞으로도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삶 속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한다.



글 | 최정태 안수집사

“예수의 고난에 물들다” - 2025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있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마가복음 14장 32절~15장 4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고난에 물들다”란 제하의 말씀이 선포됐다. 이 본문은 이승구 담임목사님이 작년 수요일예배 때 마가복음 말씀강해를 했을 때 예수의 수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마지막 부분 강해를 다음으로 미뤘는데, 이번 특별새벽기도회 때 나머지 말씀이 선포돼 더욱더 기쁨으로 다가왔다.

14일 월요일 말씀은 “**기도에 물들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느끼셨던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바꿀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셨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벽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임을 알 수 있었다.

15일 화요일 말씀은 “**용기에 물들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부인하였다. 두려움에 물들어 살아가는 용기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에 물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깊이 간직하고 묵상하였다.

16일 수요일 말씀은 “**진리에 물들다**”.

거짓에 물든 사람들, 진리에 물든 사람들, 거짓에 물들었다가 진리로 물든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진리에 물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를 이끌

어 주신 능력의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이다. 이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거짓에 물들지 않고 진리에 물들어 살아가 수 있음을 깊이 느꼈다.

17일 목요일 말씀은 “**십자가에 물들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이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누리면서 그 십자가에 물들어 살아가기를 다짐하였다.

18일 금요일 말씀은 “**소망에 물들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 사역을 마무리하고자 하나님을 믿고 유혹의 소리를 견뎌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셨다. 예수님의 소망의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다.

19일 토요일 말씀은 “**부활에 물들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며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기쁨으로 일하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부활에 물들어 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했다.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기도와 용기, 진리와 십자가, 소망과 부활에 물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2025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였다.

온 세대가 하나되어 부활의 기쁨을 나눈 <2025 올백데이>



<2025 올백데이>, 영은찬양단의 찬양과 경배로 시작

4월 20일 주일에는 부활절과 교회창립 65주년을 기념하는 <올백데이> 축제가 있었다. 전교인이 함께 한 <올백데이> 행사는 1부와 2부로 진행됐다. 오전 10~12시까지 1부에서는 부활절 예배 및 칸타타 연주가 있었고, 12시에 당중초등학교로 이동해 교구별로 점심식사를 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된 2부에서는 전교인이 하나가 되는 <어울림 한마당>이 진행됐다. 오후 3:30~4:00까지는 교구별 시상식과 함께 주

변을 정리하며 <올백데이>를 마무리했다.

■ 부활절 예배와 칸타타

오전 10시, 전교인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청, 장년은 교회 본당 3층과 5층, 3층 비전홀, 중, 고등부 학생들은 6층 체유관에서 부활절 및 교회창립 65주년을 기념하는 <올백데이> 예배를 드렸다. 교회



연합찬양대의 부활절 칸타타 <그가>

학교 어린이들은 각각의 예배 장소에서 예배드렸다.

2천여 성도(청·장년 1,640명, 교회학교 410명)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올백데이> 행사로 전 교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큰 교회이면서 동시에 작은 교회’가 우리 교회다. ‘한 지붕 대가족’ 같은 화목한 교회다.

이승구 담임목사님은 마가복음 16장 14-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과 사명>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했다.

“부활신앙은 사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선물로 주신 삶을 신실히 살아가면서 그 안에 있는 사명을 깨닫

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명으로 이어지는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연합찬양대의 부활절 칸타타 <그가>(우효원 곡)가 연주됐다. 시온찬양대 지휘자 채수범 집사의 지휘로 100여 명의 찬양대원과 20여 명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2월부터 준비한 <그가> 11곡을 찬양했다.

<올백데이> 예배에는 65년 동안 우리 교회의 역사를 지켜 온 창립교인 4명(김동호 원로장로, 송미자, 박복순, 한영기 은퇴권사)이 함께 했다.



예배 후 창립교인과 담임목사 부부와 함께
창립교인 : 좌로, 박복순 은퇴권사, 김동호 원로장로, 한영기 은퇴권사, 송미자 은퇴권사

■ <올백데이>의 봉사자들

<올백데이> 준비위원회 총무 허준 안수집사는 이번 올백데이 행사의 특징 중 하나는 찬조금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백데이> 예배에 청장년은 1,405명, 교회학교는 교사 232명, 학생 410명, 총 2,047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배 후 <올백데이> 행사에는 약 1,200명 정도의 교인들이 당중초 운동장으로 이동해 모두 하나가 되는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점심 도시락은 봉사부를 중심으로 권사와 집사, 청년 총 50여 명이 교회 7층 식당에 모여 준비했다. 아침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2,100개의 도시락을 만들어 교인들에게 제공했다. 당중초등학교의 운동장 관리 및 동선 안내, 물품 이동과 설치하는 안수집사와

서리집사 50여 명이 담당했다. 운동장 행사의 안전을 위해 2명(박주형 집사, 차미애 전도사)의 응급의료지원팀이 꾸려졌다.



예배 후 교회 문 앞에서 도시락과 부활절 달걀을 나눠주고 있다.



도시락을 든 교인들이 안내를 받으며
당중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올해 <올백데이> 행사는 준비위원을 별도로 임명하지 않고, 행사 기획의 실행에 필요한 재직부서를 중심으로 준비했다. 교우부와 봉사부, 중보기도부, 국내선 교부, 새가족부, 영상홍보부, 예배부, 음영부, 전도부, 교육부 그리고 안수집사회가 참여했다. 준비실행위원은 목사 및 장로 포함 17명이었고, 준비 기간 중 총 6번의 전체 준비실행위원 회의가 있었다.

■ 어울림 한마당



<어울림 한마당>에서 6개 교구가 모든 경기를 마치고 대열을 정비

당중초 운동장에서 진행된 <어울림 한마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부 황민철 청년이 맡아 주었다. 6개 교구 및 청년부가 운동장 곳곳에 천막을 치고 모여 앉아 식사도 하고 담소도 나누며, 공굴리기, 줄다

리기, 풍선 넣기, 풍선탭 세우기 등등 다양한 레크레이션에 참여했다. 운동장 한 곳에는 간이 탑차 두 대가 쥘러스와 핫도그,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어울림 한마당〉은 행운의 번호를 추첨해 6개의 멋진 선물을 교인들에게 안겨주면서 막을 내렸다. 발류다 토스터, 다이슨 슈퍼소닉 뉴럴 헤어드라이기, LG 코드제로 스팀물걸레 청소기, 다이슨 공기청정기, 삼성 쿠키 오븐, 보스 스피커 등, 누구나 갖고 싶은 고가의 제품들이 교인들에게 돌아갔다. 그밖에 교구별로 행운의 번호들을 추첨해 다수의 교인에게 양산을 선물했다.

1949년 개교해 76살이 된 당중초등학교는 65년간 우리 교회와 나란히 역사를 함께 한 이웃이다. 영은의 교인 중에는 당중초등학교 출신들도 많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 담장 너머로 공유한 시간과 추억도 잊을 수 없다. 4월 20일, 또 한 번의 추억을 만들었다. 영은의 성도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가 운동장에서 뛰고 달리고 소리치며 ‘어울림 한마당’을 누볐다. 온 세대가 하나되어 부활의 기쁨을 나눈 〈2025 올백데이〉는 영은의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 준 감사의 날이 되었다. 
 〈글 : 김명희 기자 / 자료제공 : 허 준 안수집사 / 사진 : 허영준 집사〉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이승구 담임목사님의 개회선언

■ 사진으로 보는 〈올백데이〉



〈어울림 한마당〉 진행 : 황민철(좌)



6개 교구와 청년부, 준비운동



찬양으로 헌신하는 장년 찬양대



4월 20일 주일, 연합찬양대의 부활절 칸타타 <그가> 연주 후

우리 교회에는 주일 장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5개

찬양대가 있다. 주일 1부 예배에는 임마누엘 찬양대(38명), 2부에는 시온 찬양대(56명), 3부에는 호산나 찬양대(74명), 4부에는 갈릴리 찬양대(65명)가, 수요일예배에는 사론 찬양대(40명)가 찬양으로 헌신한다. 특히 2부와 3부 예배에서는 영은 실내악단(16명)이 찬양대와 함께 찬양곡을 연주한다. 이번 <color : 찬양>에서는 5개 장년 찬양대를 소개하면서 찬양으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봉사의 자리로 초대한다.



대장 | 박길혜 권사

1부 : 임마누엘찬양대

- 지휘 : 하정태 집사
- 피아노 : 황지선 집사
- 오르간 : 민혜영 집사

할렐루야!

주일 아침 첫 예배의 찬양을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는 대원들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올해 평균 출석률 95%를 이어가고 있으며,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가족적인 분위기의 찬양대입니다. 열정적인 하정태 지휘자와 함께 주일 아침 6시 20분에 찬양 연습이 시작됩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성도들을 언제든지 환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장 | 강대근 안수집사

2부 : 시온찬양대

- 지휘 : 채수범 집사
- 피아노 : 김수영 선생
- 오르간 : 이가영 집사

시온 찬양대는 열정 가득한 섬세한 지휘와 선곡이 돋보이는 젊은 피! 채수범 지휘자를 중심으로 청년에서 장년까지 대원들의 다양한 구성이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기에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 드리는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프라노 파트에 재능이 있으신 여 성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color : 찬양



대장 | 연상훈 안수집사

3부 : 호산나찬양대

- 지휘 : 이한주 집사
- 피아노 : 류보배 집사
- 오르간 : 임단비 집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는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찬양대는 바로 이런 외침처럼 감사와 은혜로움을 마음에 담아 찬양합니다. 호산나 찬양대와 함께 하나님께 은혜로운 찬양 올리시기를 원하시는 신실한 분들을 환영합니다.



대장 | 김우신 안수집사

4부 : 갈릴리찬양대

- 지휘 : 배승현 집사
- 피아노 : 이희승 집사
- 오르간 : 김정은 집사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시편 150:6)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신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4부 예배는 찬양 중심의 예배로 회중석에서의 찬양도 기쁨과 감동이 있지만, 갈릴리 찬양대와 함께하시면, 은혜 4배, 감동 4배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장 | 이정숙 권사

수요예배 : 샤론 찬양대

- 지휘 : 이한주 집사
- 피아노 : 염정은 선생
- 오르간 : 김경희 선생

샤론 찬양대는 아름다운 여성 대원들로만 구성된 특별한 찬양대입니다. 이한주 지휘자의 탁월한 지도하에, 피아노 염정은, 오르간 김경희 선생의 반주에 맞춰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파트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예배와 매월 첫째 주일 오후예배에서 여성만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화음으로 준비된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에 대한 열정과 기쁨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샤론 찬양대와 함께해 주세요!



봉헌의 의미와 드리는 자세



글 | 한진구 목사

오늘날의 예배 속에 봉헌이란 단순히 돈을 바치는 행위를 지칭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봉헌의 의미는 예물을 드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성도들이 드리는 응답적 행위를 총칭하는 말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성을 다하여 경청한 무리가 스스로 우러나는 감사의 응답으로 내어놓은 모든 마음과 정성의 표현이다.

구약에서는 성전을 찾는 무리가 빈손으로 성전 예배에 임하지 않고 희생의 예물을 손에 들고 나아가는 것을 당연한 자세로 알았다. 그리고 레위기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지적된 십일조 봉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규례로 드리는 규범이었으며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신약과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건물이 따로 없었기에, 봉헌은 말씀의 예전이 끝나고 성만찬 예배가 시작될 때, 주님의 희생에 참여하기 위해 빵과 포도주를 제단 위에 드리는 것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돕는 예물을 드리는 것을 봉헌이라고 하였다. 이는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본받아 성도들도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구약과 초대교회 시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여러 종류의 헌금이 있다. 십일조와 감사헌금, 절기헌금 등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목적에 따라 쓰이는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등이 있다. 이것은 구약

에서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제물을 화제로 드리는 것 외에도 성전유지와 제사장과 레위인을 섬기는 것을 포함하며, 또한 신약성경에서의 성찬을 하며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것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봉헌해야 할까?

첫째는 구약의 맥락을 이어받아 희생의 예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들의 희생적인 신앙과 정성과 마음이 모아진 것이어야 한다. 자신이 사용하고 즐길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적 행위가 담긴 예물로 제단에 바치는 것이 참된 봉헌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사도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색하거나 억지로 내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즐겨 내야 할 것이다.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그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바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초대교회처럼 가난한 성도들의 생활을 돕는 일이든지 아니면 오늘의 선교 사업을 이룩하기 위함든지, 성전의 건축이나 운영을 위한 것이든지 어느 곳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도록 바라기를 소망하면서 드려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각기 다를지라도

글 | 이숙경 기자

부활절 이튿날인 지난 4월 21일,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였다.

교황의 선종을 중심으로 고작 몇 주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다. 교황의 생전 활동을 추억하면서도, 어떤 이는 존경과 추모를 전하고, 어떤 이는 책이나 영화 비평하듯 잘한 일 잘못된 일 부족한 일을 하나하나 꼽아가며 교황의 생애를 논한다.

인터넷에서는 원출처를 알 수 없는 ‘교황의 마지막 편지’가 떠돌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장례식에 파란색 정장을 입고 참석한 데 이어, 취임100일 기념 행사 때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교황이 되고 싶다. 그것이 내 첫 번째 선택이다.’라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일었다. 한국의 기자들은 유흥식 추기경을 차기 교황 후보로 거론 중이다. 다른 나라들 역시, 자국의 추기경들을 앞세워 기사를 쏟아내는 중이다. 종교 내에서도 보수와 진보로 나누고, 어느 곳에 속한 자인지를 따져가며 콘클라베(교황선출)를 준비하고 있다. 그야말로 온 세계가 주목하는 죽음이다.

마치 불수레를 타고 회오리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보는 것 같다. 물론 엘리야도 이렇게까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겠지만.

엘리야는 육체적인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불려간 인물이다. 성경에서는 그런 인물이 한 명 더 나오는데, 바로 에녹이다.

에녹은 므두셀라의 아버지로,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 낳고……’로 유명한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짧은 기록이 전부다. 신약에

서의 언급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히 11:5)라는 정도의 표현 외엔 없다. 그의 삶에 어떤 업적이나 과오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구약성서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열왕기에 수없는 사건과 함께 등장하는 엘리야에 비하면 말이다.

죽음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마치 고요한 오후의 바닷가에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이 점점 멀어져 시야에서 사라지는 장면이 떠오른다.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업적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매우 평화롭고 고요해서 내 마음까지 잔잔해지는 장면.

이것이야말로 내가 바라는 ‘소천’이다. 죽음은 두렵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면 매우 기꺼워니까.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된다. 평가할 무언가조차 없어도 된다. 세상의 수많은 기록에 내가 몇 자 남지 않아도, 아니 아예 남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 인간으로서의 죽음 이후까지 - 걸어가 수만 있다면.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런 우리와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동행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는 램보르기니 옆자리에 타든, 끝없는 길을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느긋하게 걷든, 죽음으로 향하는 우리의 여정은 혼자만의 외로운 길이 아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러니 우리는 그저, 걷자. 끝없이 나아가자.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을 이 사사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대로. 



올백데이 <사진 : 허영준 기자>

▶ 교회를 섬기는 분들

원 로 목 사 허남기
 담 임 목 사 이승구
 부 목 사 최광주 이준희 이예리아 박대원 정성훈
 한진구 신요한 김민식 이찬양
 교 육 목 사 전수현
 전 도 사 장미애 김영락 김찬영
 교 육 전도사 나진희 박선민 황금성 황예찬 손예지
 정희수
 파 송 선교사 구용회 백현이
 협 동 목 사 소병찬 김규리

▶ 영은교회 찾아오시는 길



▶ 영은교회 예배시간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본 당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4부 오후 1:30	
오후예배	오후 3:30	본 당
수요일예배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본 당
금요일야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본 당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1층 영아부실
유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소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꿈자람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2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고등부	주일 오전 9: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청년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은교회

www.youngeun.or.kr

월간동행 e-mail : yemagazine@naver.com